

# 여수 해안지역 : 답사코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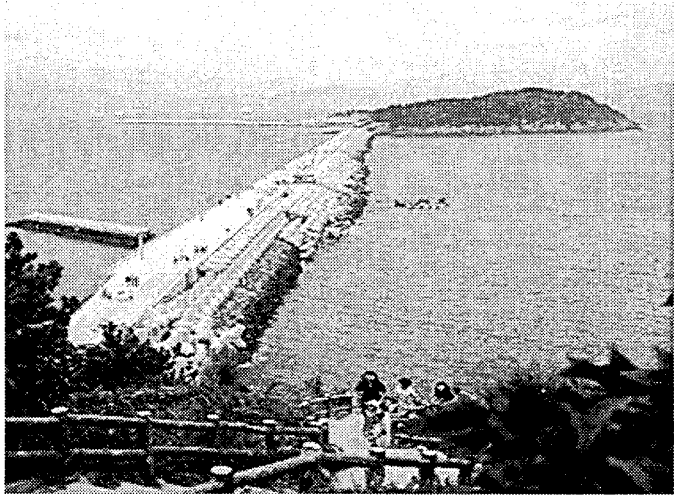
강성열(전남대 박사과정 수료)

## 제1코스 : 오동도

### 1) 개관

오동도는 멀리서 보면 지형의 생김새가 오동잎처럼 보이고 옛날에는 오동나무가 뺨뺨이 있어 오동도라 불리게 되었다. 한때는 이층무공이 이 섬에 대나무를 심게 한 후 대나무가 번성하자 죽도(竹島)라 불렀다.

오동도는 천혜의 미항, 여수시 수정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토끼 모양의 작은 섬이었으나 현재는 긴 방파제로 육지와 연결되어 있고 여



수역에서는 1.2km, 여수공항에서는 19.7km 지점에 위치한다. 섬의 동서 길이가 530m로 작은 편이고 섬 전체가 오동나무, 대나무, 소나무와 암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여수시내에 인접하여 교통이 편리한 편이어서 항상 외부 관광객이 많은 편이다.

### 2) 지형 및 지질

오동도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암석은 중생대 백악기 화산암(안산암, 유문암)과 화산 쇄설암(응회암, 화산각력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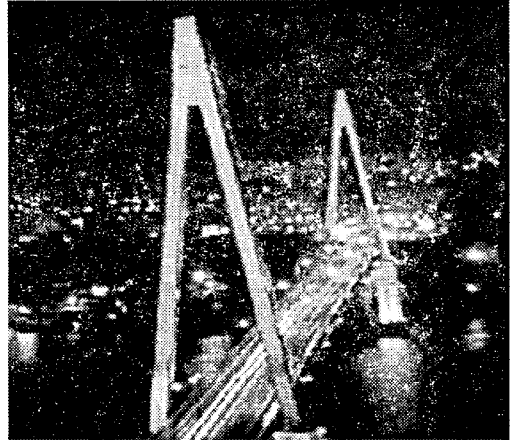
화산암 및 화산 쇄설성 퇴적암의 분포 때문에 오동도는 모두 해안가는 암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지형 기복이 심하다.

해양성 기후의 영향으로 난대성 식물이 잘 발달하고 있어 독특한 경관을 이루고 있다.

## 제2코스 : 돌산도

### 1) 개관

돌산도는 행정구역상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에 속하며 남북 길이가 16km에 이를 만큼 대규모의 도서이다. 또한 여수시와는 연륙교인 돌산대교로 연결되어 있고 섬 전체를 일주하거나 관통하는 도로가 잘 개설되어 있어 대부분의 지역까지 자동차를 이용한 접근이 매우 용이한 상태이다. 특히 향일암 지역은 주변 경관이 수려하고 일출 광경이 장관인 곳으로 명성이 나 있어 연중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여수시와 돌산도 각 지역간은 시내버스가 매 시간 운행되고 있어 대중교통도 편리한 편이다.



### 2) 지형 및 지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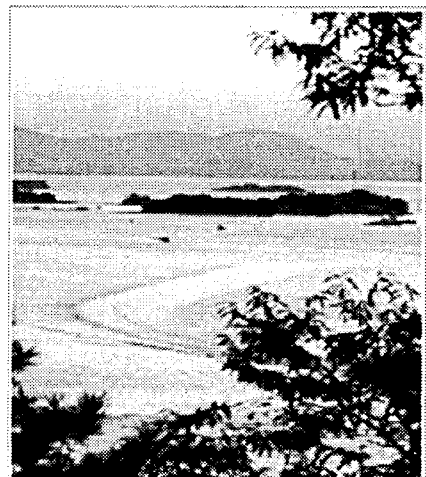
금오도, 돌산도, 오동도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암석은 중생대 백악기의 화산암과 화산 쇄설암이다. 화산암 및 화산쇄설성 퇴적암의 분포지역인 금오도, 돌산도, 오동도는 모두 암석해안으로 되어 있으며, 지형 기복이 심다.

## 제3코스 : 경도

### 1) 개관

여수시 국동에서 남쪽으로 0.5km정도 떨어진 섬으로 교통수단은 중앙동 도선장 (중앙파출소 옆)에서 뱃길로 5km(약 15분소요)거리에 있으며 국동 일정조선소 앞에서 1km 거리에 위치하며 시간은 5분정도 소요된다.

경호도는 본래 돌산군 경호면의 지역으로 먼 옛날엔 섬 전체가 고래와 같은 형세를 닮았다하여 고래경(鯨)자와 섬도(島)자를 사용하다가 고래 말 어느 왕의 후궁이 서울에서 귀양 와서 서울경(京)자로 다시 바꾸어 사용하다가 1914년 일제의 행정개편으로 대경도(大鯨島), 소경도(小鯨島), 가장



도(加長島), 야도(冶島)를 병합하여 경호리(鏡湖里)라 하였다

대경도(大鯨島 큰경도) - 고래섬의 큰섬.

고래섬(경도) - 경호리를 이룬섬. 고래처럼 생겼는데 크고 작은 두 섬으로 갈라져 있다.

노도(老島) - 오복(五福)마을 동쪽에 있는 작은 섬으로 갈매기가 많이 서식함

오봉산(五鳳山) - 내동(안몰)동남쪽에 있는 외딴섬.

내동(內洞)은 대경도(大鯨島)내에 있는 안동네(안몰)이라하며 오복마을 북쪽에 있으며, 내동마을은 어느 왕비(왕명은 알 수 없음)가 귀양 왔던 곳으로 성산에 성(城)이 있고 대궐을 지은 흔적으로 옛 기와가 묻혀있다.

## 제4코스 : 백야도

### 1)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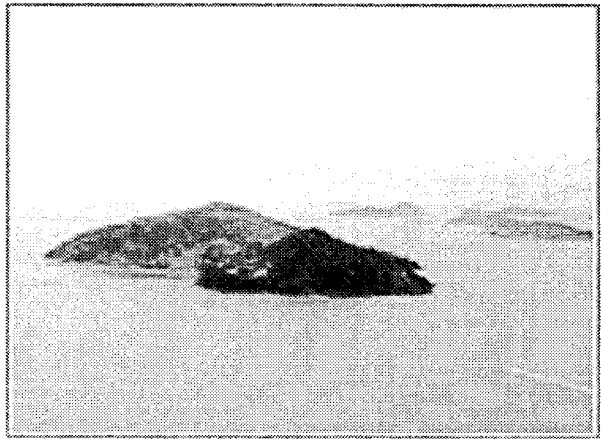
면적 3.08km<sup>2</sup>, 해안선길이 11.3km의 섬이다. 여수에서 남서쪽으로 18.5km 떨어져 있고 원래는 호랑이같이 사나운 사람이 산다 하여 백호도라 불렀으나, 1897년 돌산군 설립 당시 백야도로 개칭되었다. 약 400년 전 장흥 고씨가 들어와 정착하였다고 한다.

최고점은 백호산(286m)으로, 산의 정상 부분은 산세가 험하지만 산록부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어 농경지와 취락이 형성되어 있다. 남쪽 해안에는 해식애가 발달하였다.

1월 평균기온 2℃, 8월 평균기온 25℃, 연강수량 1,369mm이다. 기후가 온난하여 동백나무가 무성하고, 남국적 경관을 이룬다.

주민들은 농업과 어업을 겸하고 있다. 주요농산물은 보리·고구마·쌀이고 수산물은 멸치·붕장어 등이 잡힌다.

조선시대에는 백호산에 봉수대와 백야산성이 있었고, 말을 사육하던 백야목장이 있었다. 동백과 해송이 숲을 이루어 아름다운 경관을 자아낸다. 해마다 여름에 많은 피서객들이 찾고 있으며, 특산물로는 향기 좋은 유자가 유명하다. 1929년에 세워진 백야도 등대는 여수와 목포 간 항로의 주요표지이다.



## 제5코스 : 조발도

### 1) 개관

행정구역상 여수시 화양면 조발리에 속하며 남해의 여자만 입구에 도서 방향으로 분포하는 대소의 도서 중의 하나로 여수시 화양면의 내륙과 가깝게 위치한다. 도서 남서쪽 해안가에 해안 절벽이 형성되어 있으며 낚시터로서 많은 관광객이 왕래하는 도서이다. 교통은 광주에서 승용차로 약 2시간이 걸리며 고흥군 영남면 우천리 용암마을에서 소형선박으로 왕래가 가능하며 약 20분이 걸린다. 조발도는 적금도나 낭도에서 연결된다.

### 2) 지형 및 지질

조발도는 낭도의 북쪽 양 1.5km 떨어져 있으며 북서 - 남동 방향의 위치를 하고 있다. 도서 북서쪽 78m 표고와 남동쪽의 171.2m 표고의 단일 능선이 고지를 이루며 도서 북서쪽 중앙부의 저지대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으며 남동부의 암서쪽 해안가에 가파른 해안절벽이 형성되어 낚시터로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도서의 대부분이 세립 내지 중립질로 응회암으로 분포하며 층리가 발달되어 있으며 간혹 각력을 함유하기도 한다. 적색 세일 및 응회암질 사암이 응회암층 내에 협재하기도 한다.

## 제6코스 : 낭도

### 1) 개관

행정구역상 화양면 낭도리에 속하며 남해의 여자만 입구에 동서 방향으로 분포하는 대소의 도서 중 면적이 가장 넓은 도서이다. 해안가에 해안 절벽이 형성되어 있으며 낚시터로서 많은 관광객이 왕래하는 도서이다.

전체 면적 5.02km<sup>2</sup>, 인구 453명(2001)으로 여수시에서 남쪽으로 약 26.2km 떨어져 있고 주변에 적금도·둔병도·조발도·상하화도·사도가 있다. 1896년 돌산군 옥정면에 속하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옥정면과 화개면을 합하여 화정면 낭도리로 되었다.

임진왜란 때 강릉 유씨가 처음 섬에 들어와 정착하였다고 한다.

동쪽에 낭도산(280m)이 있고 대부분은 낮은 구릉지이다. 해안은 만과 갯이 교대로 연이어져 있어 해안선의 드나들이 복잡하고 만입부는 대부분 사질해안이며, 남쪽 돌출부는 암석해안이다.

1월 평균기온 0℃ 내외, 8월 평균기온 24℃ 내외, 연평균강수량 1,368.7mm 정도이다.

주민의 대다수는 농업과 어업을 겸하고 있고 농산물로는 보리·쌀·무·마늘·감자·고구마 등이 생산되며, 염소와 소 등의 가축사육도 한다. 연근해에서는 감성돔·멸치·장어 등이 잡히며, 김·굴·피조개 등의 양식과 수산가공업이 활발하다.

남도 출장소와 보건소 1개소가 있으며, 교육기관으로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가 있다. 규포마을 뒷편 상산 정상에 봉화대가 있었는데 왜군의 출몰을 알리기 위하여 세워졌다. 지금은 그 흔적만 남아 있다. 매년 음력 1월 15일 당산제를 지내고 있다. 남도해수욕장과 농어낚시가 유명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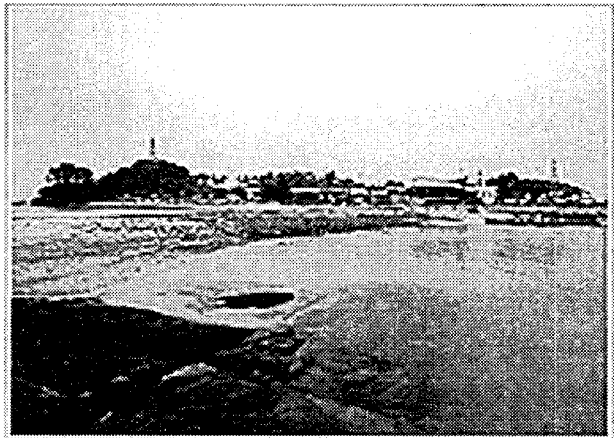
## 2) 지형 및 지질

동쪽에 남도산(280.2m)을 중심으로 북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능선이 형성되어 있으며, 도서의 서쪽과 남쪽은 최고 표고 72m로 상대적으로 저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도서 중앙부 선착장을 중심으로 남쪽 해안과 남도등대 북동쪽 연안은 가파른 해안 절벽이 형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도서 중앙부와 남도산을 중심으로 넓게 중생대 백악기 응회암류가 분포하며 도서 서쪽 일대 해안가와 남쪽 일대 해안가에 해안절벽을 형성하는 노두에서서는 층리가 발달한 적색내지 담녹색의 사암, 실트스톤, 셰일이 분포하고 있으며 남도리 선착장 부근과 도서 서측부의 중앙부에서 유문암류가 분포한다.

## 제7코스 : 사도

### 1) 개관

사도는 본도와 간도, 시루섬, 중도, 증도, 장사도, 나끝, 연목 등 7개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마다 음력 정월 대보름, 2월 영등일 등 두 세 차례에 걸쳐 2~3일 동안 “물 갈라짐” (일명 모세의 기적)이 열리면 길이 1.5km, 폭 30m의 길이 생겨나 일곱 개의 섬들이 'ㄷ'자 형으로 연결되는 장관이 연출된다. 그 뿐만 아니라 본섬의 선착장에서 20분간 해변도로를 따라 걸어 들어가면 마주치는 중도의 기암들도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순신 장군의 눈에 띄어 거북선을 구상하게 했다는 거북바위, 충무공의 전설이 어린 증도의 장군바위, 맑은 물이 솟아나는 젓샘바위, 명석 바위, 남산 야외음악당을 방불케 하는 높이 20m의 동굴바위, 사람의 옆얼굴을 닮은 얼굴바위, 고래바위를 비롯해 용꼬리를 닮은 용미암 등 기암마다 갖가지 전설이 숨어있어 더욱 흥미롭다. 그밖에 양면이 바다로 트여 있는 양면 바다해수욕장, 고운 모래밭이 일품인 사도 해수욕장 자리 잡고 있다.



이순신 장군의 눈에 띄어 거북선을 구상하게 했다는 거북바위, 충무공의 전설이 어린 증도의 장군바위, 맑은 물이 솟아나는 젓샘바위, 명석 바위, 남산 야외음악당을 방불케 하는 높이 20m의 동굴바위, 사람의 옆얼굴을 닮은 얼굴바위, 고래바위를 비롯해 용꼬리를 닮은 용미암 등 기암마다 갖가지 전설이 숨어있어 더욱 흥미롭다. 그밖에 양면이 바다로 트여 있는 양면 바다해수욕장, 고운 모래밭이 일품인 사도 해수욕장 자리 잡고 있다.

섬과 섬 사이가 멀지 않아 가족이 함께 산책하기 좋고 번잡한 일상으로부터의 해방을 만끽할 수 있다.

가족 단위의 피서객을 위해 새롭게 조성된 빗나무공원도 이색적인 분위기를 풍긴다. 그리고 바다가 한 눈에 들어오는 공원의 언덕에 앉으면 바다 건너편의 낭도까지 볼 수 있다. 최근에는 국내 최대 길이의 공룡 보행렬(84Km)과 약 1억 년 전 나무가 퇴적된 것으로 보이는 규화목 화석층이 발견돼 학생들의 학습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 2) 지형 및 지질

낭도의 남쪽에 위치하며 면적이 낭도의 약 1/30 정도의 작은 도서로 낭도의 낭도등대 맞은편에 위치한다. 도서 북측에는 소규모의 해수욕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도서 남서부에서 북서 - 남동 방향으로 가파른 해안 절벽이 형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표고는 50m이하이다. 도서의 대부분이 중생대 백악기 퇴적암류가 분포하여 흑색 내지 암회색의 사암, 실트스톤 내지 셰일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 참고자료

權赫在, 1995, 「韓國地理 - 지방편」

전남대학교, 1999, 「전남도서 해안지역 지질환경 연구」

한국이동통신 전남지사, 1995, 「내고장 의미찾기 - 전남편」

여수시청 홈페이지 <http://www.yeosu.go.kr/>